

ESCO로 고유가를 극복하자

油價

의 상승이 고공행진을 벗어나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성급한 전문가들은 유가가 200달러까지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기도 합니다. 올 초까지만 해도 이 가격은 요원(遙遠)한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150달러까지 오를 것이란 전망은 이미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을 감안한 국제 유가는 이미 1980년 4월의 2차 오일쇼크 때를 넘었습니다. 2차 오일쇼크 때 실질 유가는 배럴당 104.1달러(서부 텍사스유 기준)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유가는 이보다 훨씬 높은 배럴당 140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성을 감안한 실질 실효유가도 2차 오일쇼크 때의 150.2달러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유가가 조금만 더 오르면 오일쇼크에 준하는 충격이 올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고유가의 충격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공공요금, 자동차 연료비, 공산품 가격의 인상으로 우리 경제에 시름은 더해지고 있습니다. 초고유가가 산업계에 미치는 파장은 더욱 깊습니다. 산업계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유가의 충격으로 겨우겨우 견디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도 초고유가 극복 대책을 내놓고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한 정부의 대책은 세금 환급과 같은 단기 대책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개발, 에너지 절약 구조로의 전환 같은 중장기 정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책들 가운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에너지절약 구조로의 전환입니다.

에너지다소비 산업계부터 전등 하나를 켜는 가정집까지,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이르는 모든 구조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합리적인 구조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이범용 회장

하지만 에너지절약 구조로의 전환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선진국들도 몇 십년을 걸쳐 꾸준한 정책과 홍보를 통해 이뤄냈습니다. 현재의 고유가에 이웃 일본이나 유럽국가들이 더 견딜 수 있는 이유가 여럿 있겠지만 이미 탄탄하게 형성된 에너지절약 구조가 그 밑바탕이 된 것입니다.

에너지절약 구조로의 전환은 인식의 전환부터 필요합니다. 기업에서 CEO부터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원가의 하락을 위해 이제 에너지소비를 줄이는 것은 필수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또 투자의 우선 순위에 에너지절약 설비를 먼저 뒤야 합니다. 건물에서도 과거와 같은 방식이 아니라 전등 하나라도 고효율제품을 사용하고, 에너지절약 신기술이나 신설비를 과감히 도입해야 합니다.

다행히 최근 ESCO의 필요성에 대해 조금씩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 다양한 ESCO 기술과 설비에 대해 알지 못해서 실행하지 못하는 곳도 많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 ESCO들이 고유가 극복을 위한 첨병이 돼야 합니다. 또 고유가로 ESCO 중요성과 필요성을 절실히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부족한 홍보를 위해 더욱 기업과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하고, 과감한 ESCO 적용 사례를 모범 삼아 새로운 사업 발굴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협회도 ESCO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교육, 신규사업 확대방안, 회원사간 정보의 공유의 장 마련 등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런 노력들이 모두 고유가의 높은 파도를 이겨내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또 우리 ESCO들이 에너지절약 구조로의 개편을 위한 첨병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합시다.